

교과서 불교서술 개선 ‘첫 결실’

교육부 ‘도덕 교육과정’ 개편에 불교계 주장 반영

불교계가 추진하는 초·중·고교 교과서의 불교 관련 서술 바로잡기가 첫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도덕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서양윤리에 비해 소외받았던 동양윤리의 강화와 함께 세부내용에서 유교에 비해 홀대 받았던 불교 관련 내용이 대폭 보강됐다.

도덕 과목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연구팀’은 7월 30일 청주 한국교육원대에서 ‘2015 교육과정 개정 2차 공청회’를 열고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9월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최종단계로 발표된 시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과서 서술 기준으로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안에 맞춰 교과서를 집필한다.

시안에 따르면 특히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에서 동양·불교윤리에 대한 내용이 늘어났다.

먼저 2009년 교육과정에서 서양윤리에 이어 두 번째 분야로 위치했던 동양윤리가 2015년 교육과정에는 첫 번째 분야로 배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윤리교과서에서 “서양윤리에 비해 동양윤리의 비중이 작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09년 교육과정에서 유교에 비해 포괄적으로 기술된 불교에 대한 설명이 2015년 개정안에는 보다 상세해졌으며 분량 또한 대등해졌다.

7월 30일 교원대서 공청회

도덕 교과과정 개정안 공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

동양윤리 비중 대폭 확대

불교 관련 기술들 늘어나

통불교 사상 ‘화쟁’ 포함

2009년 교육과정에서 유교는 선진 유교 사상, 훈교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등 구체적인 학파명의 시대순 열거와 함께 유교 각 사상의 연원과 시대별 전개과정이 언급됐다.

반면 불교는 아시아 및 세계불교의 전파와 특징과 불교의 각 나라별의

미와 같이 포괄적인 내용만을 다루는데 그쳤다.

2015년 교육과정에서 불교는 ‘자비의 윤리’와 ‘분쟁과 화합’이라는 총 2개의 챕터에서 다뤄진다. ‘자비의 윤리’에 대한 교육 내용은 ‘불교는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추구한다. 이어 대중에 대한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는 대승불교로 발전했다’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통해 불교 경전의 이해와 불교적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교육될 계획이다.

‘분쟁과 화합’은 한국불교의 화쟁 사상이 주요한 교육 명제이다. 시안에는 ‘(한국불교가) 대립하는 다양한 관점의 조화를 추구하고 소통과 실천을 강화했다’는 정의와 함께 한국불교가 제시한 화합의 방법으로 화쟁 사상과 선교통합을 들고 이를 토대로 교육 성취조건 등을 제시했다.

이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초중고교과서연구위원회가 주장·제안했던 내용들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특히 한국불교의 전통 중 하나인 ‘통불교’ 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원효의 화쟁사상을 주요하게 포함

시켰다. 위원회는 “한국불교는 선종과 교종이라는 이분법적 단계를 거쳐 통불교적 성향으로 변모했다. 한국불교의 특징을 통불교적인 성격으로 파악해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상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초중고교과서연구위원회 연구원은 “교육과정 내의 포괄적 설명은 그동안 유교 서술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홀대 받았던 교과서 내 불교 관련 서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중·중등교과과정의 경우에는 2009년 교육과정에서 종교에 대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라고 표현된 부분이 ‘자연·초월과의 관계’로 개정됐다. 초월적 존재가 일부 종교에서의 ‘신’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

박 연구원은 “그동안 불교분야에서 비전문가가 교과과정 개정을 책임진 반면, 이번 개정에는 전문가가 포진해 상당 부분 불교 관련 서술이 늘었다”면서 “한국전통사상이자 윤리인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음식 교육에 심취한 공양주들

사찰 식탁을 책임지는 공양주를 전문 교육함으로써 산사 음식 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주지 계호)는 7월 27~29일 산사음식교육장서 ‘제1차 공양주 채용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전국각지서 모인 사찰 공양주 및 공양주 희망자 40여 명이 6조로 나뉘어 2박 3일간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7월 29일에는 2박 3일간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발표음식 만들기 열었다. 육바라밀 보시·지계·인욕·정진·선경·지혜 6개조는 제바라밀로 대표적인 여름 산사음식 재료를 결정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이날 대상은 인욕조의 가지요리가 차지했다. <관련 기사 6면>

글·사진·박익기 기자

조계종 중앙총회 9월 8일 열린다

28일 연석회의서... 중헌 개정따른 중법 개정 추진

조계종 중앙총회 제203회 임시회가 9월 8일 열린다. 이번 총회는 원로회의의 중헌 개정 인준에 따른 중법 개정안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는 7월 2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203회 임시회 일정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중헌 개정에 따른 중법 개정과 202회 회의에서 이월된 중법을 다루기 위한 중앙총회를 9월 8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기로

확정했다.

후속 개정이 필요한 중법은 원로회의법을 비롯해 선거거법 △중앙총회법 △호계원법 △법규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중무원법 △승려법 △교구총회법 △교육법 △포교법 등 11개이다.

이전 회의에서 이월된 총림법, 해외교구특별법 중법 개정과 중헌 표준의례 동의의 건운영의 건도 다뤄진다.

중정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이뤄진다. 그간 중앙총회는 9월 임시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10월 감사를 진행하고 11월 정기회에

서 결과를 보고했다. 연석회의는 정확한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들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미등록 법인 제재조치 유예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무분과위원장 함결스님은 “선학원정상화특별위원회가 중헌 개정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중앙총회의장 성문 스님은 “9월 총회에서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만 제재하는 방침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 광범위한 제재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재심은 잘못된 판결, 위원 사퇴 권고”

대중공사 논의 결과... 해결 위한 기구 구성 결의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의현 스님의 재심요청 ‘공권정지 3년’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심요청위원장과 재심요청위원들이 사퇴할 것도 권고했다.

‘중단개혁과 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7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8시간에 걸친 전체, 모둠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다.

대중공사 참가자들은 “의현 前 총무원장의 재심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에 대해 재심요청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고 밝혔다.

이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별하자 사면 등 미래 지향적으로 중단 과거사 문제를 다뤄가며, 중앙총회와 총무원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한다”고 촉구했으며 “개혁정신을 드높이고 이 시대에 맞게 실현하여 사부대중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화합된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매진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대중공의 기구 구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사부대중이 의견을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대중공의에 대한 결의문 조문에 구성 주체가

누락돼 있는 등 해석의 폭이 넓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월 중 승가청규 발표

또한,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4차 공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 발표도 이뤄졌다. 이날 보고에서 지현 스님은 “중단 쇄신위원회 산하 청구제정위원회에서 성안한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많은 중도들이 청정한 삶에 수회중찬할 수 있도록 승가청규 중단본을 확정하고 이르면 8월경 중단적 시행선언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교역적 중무원 공모제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올해

2월 가사원 운영국장 공모를 실시해 비구니 스님을 임명했고, 현재는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에 대해 공모제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사회복지 및 문화, 문화재 분야 등 특수 분야에 대해 공모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 교구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여러 조치 방안도 내놨다. 지현 스님은 “주지인사고과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앙 교구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교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주지인사고과제도 하나의 의제로 선정할 것”이라며 “또한 사찰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지역 플랫폼 구축 등의 대책도 중앙 교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불교계 ‘통일나눔펀드’ 동참

조계종, 27일 약정식... 자승 스님 등 참여

조계종이 7월 27일 통일과 나눔재단의 ‘통일나눔펀드’에 동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

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통일나눔펀드 월 1만원 기부를 약정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호법부장 세영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등도 기부를 약속했다. 또 중앙총회의장 성문 스님, 호

계원장 자광 스님도 월 1만원 기부

에 동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젊은 세대에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통일나눔펀드는 통일에 대비해 십시일반으로 1만원씩 기부해 통일의 가치를 깨닫고 통일에 대한 인식의 새싹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필 기자 kimj4217@hyunbul.com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한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르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할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승·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한글/영어)